

## 〈主 題〉

# 金融의 情報化와 金融產業의 發展

윤 석 현

(한국금융연구원)

### □차 례□

- |                       |                             |
|-----------------------|-----------------------------|
| I. 序 論                | IV. 最近 金融產業의 特徵的 變化 推移 및 展望 |
| II.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國際競爭力  | V. 金融의 戰略產業화와 우리의 課題        |
| III. 金融產業의 發達과 情報의 役割 |                             |

### I. 序 論

최근開放化·世界化 추세下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제적 기준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國際競爭力이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들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이 종종 일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금융산업의 落後性 내지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長期的 成長·發展을 저해하여 우리나라가 先進國 대열에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이제부터는 금융을 高附加價值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國富의 增大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한편 世界 金融產業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未來의 金融產業은 이제까지의 그것과는 판이한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의 落後性 탈피와 國際競爭力 제고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때 그리고 향후 世界 金融產業의 變化를 주도하게 될 動因이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이라고 할 때 정보통신기술의 확충을 통한 金融革新의 추구는 우리 경제

의 성장·발전전략의 요체가 될 것이다.

본고는 향후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동인으로서의 情報 및 情報通信技術 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長期發展方向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第Ⅱ節에서는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現況을 평가하는 동시에 國際競爭力 提高의 필요성을 논한다. 第Ⅲ節에서는 金融產業에서의 情報의 役割을 논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第Ⅳ節에서는 情報화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 금융산업의 특징적 變化 내역 몇 가지를 살펴본다. 第Ⅴ節은 이 글의 結論으로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 II.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國際競爭力

과거 우리나라 금융은 정부의 經濟開發 추진과정에서 實物經濟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60년대초부터 정부는 金融을 국내외에서 수출 및 제조업 등 國家戰略產業 지원에 필요한 財源의 조달 및 공급 통로로서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우리 경제가 貧困의 惡循環에서 탈피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하는 데 공헌한 바 컸다. 그러나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정책파라다임은 經濟의 規模가 확대되고 構造가高度化되면서 지원대상 선정에서의 비형평성, 지원체계 및 방식에서의 비효

율성 등을 초래하면서 그 實效性이 低下되기 시작하였다.

金融產業의 目標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金融政策은 실물경제 지원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家計 또는 國家戰略產業으로 시장 받지 못했던 일부 산업 등의 利益 增大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한편 금융에 대한 과다한 규제와 과도한 行政介入 등은 금융기관내 안일하고 소극적의 思考와 意思決定을 고착시키고 責任經營體制의 轉變을 지연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상가적 발전에 필요한 自律性 轉變과 創意性 개발을 저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效率性 低下를 초래하였는데, 금융기관들은 經營合理化 등 內實을 다지기에 앞서 외형 성장을 일차적 經營目標로 추구하였고, 구속성 예금과 대출 커미션 등 不健全 金融慣行이 旦頃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의 不法去來와 私金融 등도 번성하였다.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양적 측면에서는 실물경제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sup>1)</sup>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이러한 量的 成長에도 불구하고 自律化 經驗의 不足과 이로 인한 金融技法의 未發達, 金融下部構造의 脆弱性, 國제적 기준에 부합치 않는 金融制度 및 慣行의 지속, 國際金融市場에서의 경쟁 부족과 낮은 信認度 등으로 특히 질적인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향후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요인中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情報通信技術의 발달과 금융의 國際的 統合인데, 이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각각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미래의 금융을 과거의 그것과는 완이하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예전대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假想銀行(virtual banking), 인터네트 맹킹(internet banking) 그리고 富計定(wealth account)<sup>2)</sup> 등이 개발단계에 있거나 또는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늦어도 21세기 이전까지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세계 금융산업이 향후 이러한 革新的의 變化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의 금융이 이제까지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현재의 競爭力 劣勢를 만회하는 機會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의 國際的 統合化 進展은 규제와 보호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녀왔던 금융산업에 대한 保守的 認識을 180도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세계 각국의 금융개방화 추진 및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주는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에 따라 금융거래에 있어 국경의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보다 資金力과 情報力이 우세한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또 국내 투자자들도 외국 금융기관들을 통해 해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國內進出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심화될 경우 경제의 空洞化 현상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經濟主權의 壓失이라는 갑당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금융의 國제적 통합화 추세下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의 長期的 發展을 위해서 금융산업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서둘러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통상 금융의 요체가 危險負擔, 다시 말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위험의 부담에 있다고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國際競爭力を 유지하면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國家的 次元에서의 危險負擔이 요청된다. 즉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投資와 보다 진취적 방향으로의 金融政策의 전환 등을 포함하는 위험부담,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됨으로써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危險負擔이 필요할 것이다.

### III. 金融產業의 發達과 情報의 役割

#### 1. 金融과 情報

實物과 金融의 關係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실물 경제를 사람의 몸에 그리고 금융을 그 안에서 흐르는 피에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는 인체내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인체의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金融이 實物經濟의 發展을 위해

1) 경제학자 Goldsmith가 제시한 금융연관비율(총금융 자산의 경상 GNP 대비율)을 살펴보면 70년 2.12에 불과하였던 동비율이 8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94년에는 4.73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70년대말과 미국의 80년대 중반 수준에 해당된다.

2) 무게경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 항목들을 상시로 市價評價함으로써 이들을 재무적 거래 및 보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정인네, 건물과 자동차 등 비유동자산과 주식, 채권 및 기타 신금융상품 등 모든 항목들의 유통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써 이를 보조로 신용의 공여도 이루어지게 된다.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체내에서 매순간 적절한 양의 혈액이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신체 각 부분의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두뇌로 전달함으로써 활용토록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蒐集, 交換 및 活用이 필요하다.

금융산업이란 경제내에서 資金의 融通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이며 이는 통상 金融資產(또는 자금)의 需要者, 供給者, 金融機關, 그리고 金融市場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資金의 移轉을 仲介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급수단을 제공 및 관리할 뿐 아니라, 情報創出과 危險管理 등을 통해 금융자산의 질적 변환을 추진하는 經濟上體를 말한다. 금융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존재 의의는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흘러가는 경우에 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흘러갈 경우 去來費用이 節減되는가 또는 危險이 줄고 收益성이 제고됨으로써 자원이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은 다수의 資金供給者와 資金需要者를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정보의 효율적 수집, 분석, 활용은 이러한效果를 極大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金融과 情報의 관계를 편의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融市場에서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자금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누가 언제 얼마큼의 資金을 어떤 조건으로 供給 또는 需要코자 하는가에 대한 情報가 필요하며 이때 금융기관은 金融去來의 求心點으로서 이러한 정보 수요를 효율적으로 총족시키게 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資金移轉 과정에서 발생하는 市場去來者들에 관한 정보를 集積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質的으로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金融商品의 收益率을 높이고 危險을 줄일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개별고객들과 지속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보다 충실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셋째, 금융기관은 예컨대 대출후 貸出顧客의 事業內容을 監督하는 과정에서 엄게 되는 새로운 정보와 외부로부터의 정보 등을 토대로 대출고객에게 수시로

諮詢과 資金支援 등을 행함으로써 대출사업 자체의 成功確率을 높일 수도 있다. 넷째, 금융기관은 스스로가 습득한 정보를 금융상품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反映함으로써 金融市場에 정보를 되돌려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금융기관의 이러한 기능은 금융시장 내 價格의 情報機能을 活性化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金融市場의 效率性增大에 기여하게 된다.

## 2. 情報通信技術의 發達과 金融產業의 變化

情報通信技術의 발달은 전세계적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성격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산업이 지니고 있는 不完全性의 克服에 기여할 전망이다. 첫째, 지금 결제시스템을 포함하여 각종 금융거래시스템이 電算化되면서 金融去來費用이 지속적으로 저렴해 질 것인데 금융기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去來費用 節減效果는 궁극적으로 金融消費者에게 귀속될 것이다. 둘째, 금융정보의 고속·대량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新商品 開發, 危險의 評價 및 管理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新金融理論 및 기법 등의 실무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기관의 意思決定 ability이 고도화될 것이다. 셋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점차 의미를 상실하면서 24時間 實時間(real time) 去來, 국가간 또는 지역별 금융시장간 無危險 差益을 노리는 差益去來(arbitrage transaction), 국경의 개념을 벗어난 금융시장에서의 城外去來(off-shore transaction) 등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러한 不完全性의 克服은 금융산업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특징적인 것으로 금융산업의 洪世界的 統合化, 異種 金融業種間의 兼業化 그리고 證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에서의 자리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자국내 金融規制를 피하여 규제가 적은 외국으로 또는 城外市場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그 결과 각국은 금융개방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幾세계적 통합화 내지 일체화가 진전될 것이다. 둘째, 금융산업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으로 專業主義을 고수해 온 국가들까지 동일 금융기관내 異種業種의 兼營을 허용하는 경영주의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專業과 兼業의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개별 금융기관의 自律의

3) 전업주의란 금융산업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은행, 증권, 보험 등 권별로 구분하고 상호진출을 제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금융기관 본체에서는 이종업종간 상호진출을 제한하되 차회사를 통한 이종업종에의 부분적 진출은 허용하고 있다.

決定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사업주의를 고수해온 국가들은 경영주의를 허용할 경우 예컨대 證券業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지금 결제 기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한편으로는 정보화 시대에서 爲業金融機關들의 情報能力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異種業種間 區分計理 및 효과적인 監督과 統制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爲業主義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셋째, 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金融理論의 발달은 금융시장내 정보 및 금융노하우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보편화시킴으로써 과거 은행 등 間接金融機關들이 지녔던 정보 및 금융노하우에서의 우위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을 매체로 하는 간접금융의 비중이 허락하는 대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直接金融의 비중이 상승하는 소위 '金融의 證券化'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대출 등 금융기관이 창출한 非流動性 金融資產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流動化' 현상도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 IV. 最近 金融產業의 特徵的 變化 推移 및 展望

본절에서는 情報通信技術의 發達과 관련하여 세계 금융산업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몇 가지 事例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電子貨幣의 出現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인간이 수천년동안 사용해 온 硬貨를 대체할 수 있는 電子貨幣의 開發 및 實用化 努力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電子貨幣란 그 개념과 기술의 측면에서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현재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체로 소비자가 컴퓨터 전화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銀行計座에서 인출한 금액을 IC 카드 또는 전자지갑 등에 電子情報 형태로 기록한 후 상품구매시 상점의 단말기에서 해당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無形의 情報貨幣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예로는 우선 미국의 비자(Visa) 회사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인 가치저장카드(stored-

value card)와 영국의 몬덱스(Mondex) 회사가 전세계적 통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전자세계화폐(electronic world currency) 등이 있다. 消費者들은 電子貨幣을 이용함으로써 종래의 화폐로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 예컨대 잔돈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없고 외국돈을 換錢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카드 앞으로 移替하되 의도적으로 자녀들이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電子貨幣을 충분한 개념적 및 기술적 검토 없이 도입하거나 또는 잘못 규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수점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internet) 등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電子去來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아직은 初步段階이다. 아울러 일반 대중이 이제껏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해서 부여해 왔던 것과 동일한 信賴를 일반은행들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도 부여할 것인가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금거래중 상당부분이 電子貨幣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화폐의 도입을 위한 技術開發은 급속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 2. 폰뱅킹의 活性化

최근 진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중 향후 세계 금융산업의 행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電話이다. 이는 전화를 사용하는 폰뱅킹이야말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접촉점을 고객 서비스 확대 및 이에 따른 收益創出의 機會로 활용할 수 있는 크나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폰뱅킹 업무는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화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지 뱅킹(remote banking) 또는 텔레뱅킹(tele-banking)의 일종인데, 은행은 영업시간 이외에도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게 되므로 영업신장 효과를 얻는 동시에 店鋪關聯 經費와 人件費를 줄일 수 있고 고객은 은행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함을 덜게 됨으로써 양자 모두가 선호하는 금융업의 새로운 流通경로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폰뱅킹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4) 미래에는 비선형적이고 혼란한 세계를 다루는 量子物理學과 分子生物學 등의 원리를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금융자산의 위험요인들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는 소위 素粒子金融理論(the theory of particle finance)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들랜드은행(Midland Bank)은 퍼스트 디렉트(First Direct)라는 폰뱅킹 전담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에는 본점과 전화센터(call center)인 사무실이 하나있고 고객용 로비, 지점, ATM(automated teller machine) 등은 없는데 전통적으로 은행의 기본 영업장소였던 점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고객이 전화를 걸기만 하면 資金移替, 貸出申請, 株式去來 등 다양한 거래를 신속히 처리해 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회사의 모든 직원은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단순한 전화응대는 일반 오퍼레이터가 담당하고 專門知識이 요구되는 전화응대는 전문 오퍼레이터가 담당한다. 퍼스트 디렉트는 폰뱅킹에 특화함으로써 經費率을 크게 낮출 수 있었고 그 결과 預金金利를 높이고 貸出金利를 낮춤으로써 고객기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顧客과의 전화를 통해 지점의 창구에서와 동일한 또는 더욱 신속하고 충실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폰뱅킹은 교통체증과 시간적 제약 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금융 고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기가 自動으로 서비스 항목을 들려준 후 고객에게 원하는 메뉴의 버튼을 선택케 하는 단순한 형태의 ARS(audio response system) 정도가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技術開發과 전화응대 직원의 專門知識 배양 등을 통한 영업확충이 기대된다.

한편 폰뱅킹보다 광의의 개념인 텔레뱅킹 업무 또한 향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PC, TV,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相互接觸을 가능케 함으로써 金融業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형태의 점포를 거치지 않고도 고객이 원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전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假想銀行業(virtual banking)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K은행이 초보단계의 가상은행 서비스 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바 있다.

### 3. 電子商業(electronic commerce)의 擴大

金融의 電子化趨勢는 비단 소매금융 분야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고 企業金融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영업활동 전자화 노력 확대에 따라 電子商業關聯 金融業務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電子商業이란 예전

대 제조업자가 주문을 받고 재고조사를 행하며 선적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문업체에게 통보하는 등 통상의 상거래업무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은 생산 및 주문 스케줄 등을 자동으로 간접해 주고 제품 선적후 외상매출금 파일을 관리해준다. 여기서 은행은 주문에 따르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지급업무, 대사업무 등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来去遂行過程에서 발생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금융(trade finance)을 공급하고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그밖에 거래와 관련된 保險 또는 稅關業務를 대행해 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업무들이 서류없이 처리된다.

電子商業關聯 金融業務는 소매금융업무보다 고객의 저항이 높아 아직까지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金融需要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에 따른 金融과 情報管理業務 등을 금융기관에게 대행시킴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원을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4. 情報化的進展

情報화란 개인, 조직 또는 개인간, 조직간에 정보의 수집, 창출, 교환, 공유 그리고 활용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電子工學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수집과 교환에 수반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제거함으로써 정보화를 급속히 촉진시키고 있다. PC의 지속적인 저렴화와 고성능화는 情報技術利用의 大衆化를 초래함으로써 정보의 수집원 확대에 기여하고 금융거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분석을 보다 용이하고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은 個人間 또는 組織間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이용의 卽時性을 제고하고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개인간 또는 조직간 協助可能性을 제고시켜 준다.

金融業務의 遂行은 위험의 계측과 관리를 수반하는데 최근 급변하는 金融環境속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보다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적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유형의 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발된 것이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인데 미국의 체이스 맨하탄은행(Chase Manhattan Bank)은 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용한 전문가 시스템을 위조 신용카드 적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AMEX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貸出審査에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활용은 金利豫測, 投資決定, 信用危險分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유형의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크게 확대될 전망인데, 미국 금융기관들은 부호형태의 정보 이외에도 이미 화상(image) 형태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화상정보처리시스템(image processing system)과 음성형태의 정보처리를 위한 음성인식시스템(voice recognition system)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金融機關은 情報化 추진과정에서 지식과 정보를 네이터베이스에 축적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를 고객서비스 제공 내지 은행의 전략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대형 지역은행인 뱅크 원(Banc One)은 전략적 은행경영시스템(Strategic Banking System)이라는 영업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한 후 필요한 정보를 窓口職員에게 다시금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즉, 어떤 고객이 지점에 와서 예금을 하면 창구직원의 PC 화면에 그 고객의 딸이 금년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은행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정보가 나타난다. 결국 은행은 통상의 거래에서 累積한 知識과情報を 새로운 商品의 開發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來來를 創出해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 V. 金融의 戰略產業화와 우리의 課題

人件費의 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의 競爭力이 低下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향후 高附加價值를 創出하여 國富의增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몇 가지 설정하여 이들을 國家戰略의 一元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가 그나마 競爭力의 源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는 바로 高學歷의 풍부한 勞動力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戰略產業 선정에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勞動力의 分析能力이 우수하다는 점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資本外에는 특별한 부존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금융산업을 國家戰略產業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電子通信技術의 發達을 향후 세계

금융산업의 变화를 주도하게 될 動因으로 꼽았다. 최근 들어 政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금융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급변하는 世界金融環境과 날로 심화되는 경쟁속에서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만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이 개선된다거나 또는 國際競爭力이 서절로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情報通信技術 分野에 대한 投資擴大는 금융의 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 금융산업의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巴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금융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이러한 기반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金融業務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金融의 情報化 그리고 더 나가서 金融產業의 國際競爭力 提高라는 果實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金融機關들은 경영관리면에서 革新的으로 變化되어야 한다. 특히 情報化의 擴散을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이제까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创意와 自律에 바탕을 둔 새로운 組織文化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내 垂直的, 水平的 意思疏通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정보의 가치가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組織文化의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最高經營者的 의지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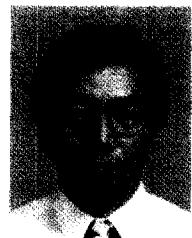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情報化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信用社會의 定着이다. 신용사회란 진실한 정보를 거리낌없이 전달·교환하고 또 이러한 정보를 신용하면서 거래할 때 비로소 가능한데 정보가 진실성과 신뢰성을 잃을 경우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 參考文獻

- 김병언외, [우리나라 은행의 리엔지니어링], 한국금융연구원, 1996. 6.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의 발전과 금융제도 개편], [금융제도개편연구: 총론], 1993. 12., pp. 1~34
- 박 천, [은행산업의 미래상, Virtual Bank], [국민경제리뷰], 1996. 1., pp. 6~12
- 오근수, [텔레마케팅의 백미, 템파뱅킹 시스템], [은행계], 1995. 5., pp. 96~101
- 21세기 경제상기구상 금융부, [개방시대의 금융산

업 경쟁력 제고방안], 1996. 5.

- 이윤봉, [정보화의 금융적 의의와 금융기관의 대응], 《신용정보》, 1995. 2., pp. 1~9
- 한국은행, [전자화폐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해외경제정보 95-52, 1995. 12
- 함유근, [금융산업의 정보화 전략: 정보화 개념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심포지엄》, 전국은행연합회·한국생산성학회, 1995. 6., pp. 115~137
- Levison, M. D., "New Delivery System: Beyond Providing Basic Services," The Bankers Magazine, July/August 1995, pp. 24~26
- McDougall, B., "Electronic Evolution," Canadian Banker, September/October 1995, pp. 28~33
- Neckopulos, J. M., "Transforming Banking by Telephone", The Bankers Magazine, July/August 1995, pp. 27~31
- Stanford, Jr., C. S., "Financial Markets in 2020", Economic Review, FRB of Kansas City, First Quarter 1994, pp. 19~28



윤석환

- 1967년~1971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 1971년~1977년 : 한국은행 행원
- 1977년~1979년 : 미국 캠타클라라대 경영학과 (MBA)
- 1979년~1984년 :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 (Ph.D. Finance)
- 1984년~1992년 : 카나다 맥길대학 조교수
- 1992년~1994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1994년~현재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